

The Future II.

영적침체! 목적과 방향성의 상실로부터 옵니다.

[마태복음 3:2-6] 2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3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4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6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1. 세례요한

예수님의 사역 전, 성경은 세례요한을 등장시킨다. 갑자기 등장한 세례요한이 무대에서 해야 할 역할은 아주 분명했다. 오늘 본문 3절의 기록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세례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예언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준비되었고, 그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었다. 세례요한처럼 이렇게까지 목적과 사명이 '수태고지'를 받은 선명한 인물이 성경에 예수님 말고 더 있을까?

그의 역할은 '외치는 것'이었다. 외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원어로 보면 '외치는 소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소리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암전하거나 예의를 갖춘 조용한 소리는 아닐 것이다. 특히 소리라는 '프호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폭로하는 듯한 소리이다. 감추어졌던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소리를 말한다. 왜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2. 침체된 그들

[마태복음 3:7-8] 7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8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에 대한 단서가 7절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이 눈앞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뿐이었다. 종교지도자들을 향한 세례요한의 외침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침체라는 것은 무섭다. '침체'는 진전되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슬럼프'도 일종의 침체와 같다.

침체와 슬럼프가 올 때 방법은 단 하나이다. 침체와 슬럼프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침체와 슬럼프의 단계가 내 힘으로 힘든 이유는, 노력하고 연습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상되는 일은 '침체와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슬럼프가 어려운 점은 하나이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무엇인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3. 침체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침체되었다는 것은 간혀 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함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침체가 오는 궁극적 이유는 선명하다. '좌표'를 잃었기 때문이다. 방향성을 잃은 것이다. 방향성은 '의미'를 말한다. '의미'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예를들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배의 좌표를 아는 것이다. 어려운 풍랑이 있지만 잘 가고 있구나, 조금만 더 지나면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방향성은 중요한 것이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1) 총론을 잃어버리고 각론만 있는 시대

총론과 각론이 있어야 좋은 논문이 만들어진다. 그래도 주의해야 할 것은 총론은 전체 그림이다. ‘숲’이라 말할 수 있다. 각론은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각론에만 집중해 현 상황을 분석만 하고 있으면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숲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열심히 분석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방향성을 잃은 것이다.

(2) 전체를 보는 눈,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

내 앞에 보이는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모여 형성된 숲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야 함몰되거나 침체되지 않는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전진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숲을 보거나 전체적인 총론을 말하는 것이 ‘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로 들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대화를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 일을 해서 지금 나에게 주는 이익은 뭐죠?’라는 질문이다. 맞는 말이다.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비전과 꿈’은 사치가 된다. 이 시대는 비전과 꿈을 말하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는 시대로 만들어 버렸다. 비전과 꿈을 말하면 ‘네 앞가림이나 잘 하고 말해’라고 한다. ‘비전과 꿈’을 말할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말하라고 한다.

‘상상력’이 없는 시대이다. 상상력은 무엇인가? 상상력은 경험하지 않은 것, 현재에 없는 대상을 직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나 다른 감각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정신적인 이미지와 감각과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상력은 창의적 사고에 가장 필요한 사고방식이다. 현재에 없는 대상을 직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이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있어야 창조적인 일이 일어난다.

“나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 believe in Christianity as I believe that the Sun has risen, not only because I see it, but because by it, I see everything else).” _ C. S. 루이스

그는 ‘기독교가 현실의 큰 그림을 제공한다. 그는 기독교의 지적 방대함이 과학과 예술, 도덕에 들어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기독교가 현실을 비추며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독교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어떤 동기로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라고 말했다.

상상력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힘이다. 루이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그가 지닌 상상력을 통해 구체화시켰다. 분명히 보여주었다. (루이스가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4. 각성의 소리가 필요하다.

침체와 슬럼프의 때 필요한 것은 외부의 소리이다.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 선명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각성 시켜주는 소리가 되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한 가지이다. 구원투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 본진의 대형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주전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교회를 깨웠고, 하나님 자녀들을 깨웠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다시 보여주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나와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막혔던 상황 안에 길을 만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

깨어나야 한다. 상황과 시대가 주는 압박감에 함몰되지 말고, 광야에서 외치시는 자의 소리로 나 자신을 깨워 전체를 보아야 한다. 오늘 그 소리를 듣자.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음을 인식하자. 그 소리를 들으면 침체에서 나올 수 있다. 깨어나야 할 때이다. 다시 좌표를 잡아야 할 때이다. 할렐루야.